

 농림축산식품부	보도자료	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
2019년 10월 8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 과 장 박상호(044-201-2411), 서기관 최민지(2415) 농촌진흥청 기호스마트팜농업팀 팀장 이충근(063-238-0745), 연구사 도윤수(0776)/ 제공일 : 10월 7일(총 4매)		



“IT·제조업의 스마트 기술을 농업분야 도입 촉진” - 비농업 분야 혁신 현장로봇, 인공지능 등에서 스마트 농업 포럼 개최 -

《 주 요 내 용 》

- ◆ IT·제조업 등의 앞선 스마트 기술을 농업분야로 도입하기 위해 산·학·연·관 전문가 현장 포럼을 발족하고 1차 포럼을 현대자동차 의왕연구소(웨어러블 슈트 개발)에서 개최
- (일시/장소) 2019.10.8.(화) 14:00~16:30 / 현대자동차 의왕연구소
- (참석자) 포럼위원 및 현대자동차 관계자 등 40여명 참석
- 1차 포럼 주요 내용
 - 웨어러블 슈트 연구·개발 동향 및 농업분야의 적용 가능성
 - 국내외 로봇 산업 및 연구개발 동향과 농업용 로봇 현황 등
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)와 농촌진흥청(청장 김경규)(이하 농식품부와 농진청)은 “농업 전반의 스마트화”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『스마트 농업 현장 포럼』을 발족한다.

- 이번에 출범하는 『스마트 농업 현장 포럼』은 IT·제조업 분야의 혁신적인 산업현장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하여, 첨단 스마트 기술들을 농업분야로 도입할 가능성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장(場)이다.

- 포럼 위원은 농산업(생산·가공·유통·소비)과 스마트 기술(IoT, AI, 로봇, 빅데이터 등)의 분야별* 전문가 40여명으로 구성된다.

* ①생산·가공, ②유통·수출, ③소비·안전, ④무인·자동화, ⑤AI·빅데이터, ⑥정책·제도

- 분기별로 스마트 기술 선도 산업현장*을 방문하여 비농업 분야의 첨단 기술이 농업분야에 적용 가능한지 등을 검토해 간다는 계획이다.

* (후보군) 로봇, 인공지능·빅데이터, 에너지 절감, 미래형 IoT·센싱, 무인·자동화, 자율주행·드론, 환경친화(부하저감), 스마트 유통 등과 관련된 선도 산업현장

-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제1차 포럼을 현대자동차 의왕연구소에서 개최한다.

- 현대자동차는 무동력 웨어러블 슈트를 개발(2018.2월~2019.4월)하여 북미 공장 생산·조립 라인에 시범투입(2019.1~)하고 있다.
- 이를 통해 작업 능력을 제고할 뿐 아니라 작업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효과도 30% 이상 높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.



○ 포럼 위원 등 40여명이 참여하는 1차 포럼에서는 국내외 로봇 산업의 연구·개발 동향(로봇융합연구소)에 대하여 소개하고,

- 농업용 로봇의 개발 및 산업화 동향(농촌진흥청), 웨어러블 슈트에 대한 국내외 연구 및 산업화 동향(현대자동차 로보틱스팀)에 대한 소개와 질의 응답 등 논의가 이루어 질 예정이다.

○ 현대자동차(로보틱스팀)는 웨어러블 슈트 이외에 그간 연구·개발한 제품*들에 대한 소개와 함께 참여한 위원들에게 시범 착용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.

* 의료용 착용로봇, 허리보조 착용로봇, 호텔 서비스 로봇, 판매 서비스 로봇, 전기차 충전 로봇, 로보틱 퍼스널 모빌리티 등

- 포럼 참석 위원들은 해당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농업 현장에 적용 가능성과 도입 추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.

□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『스마트 농업 현장 포럼』을 통해 농업 분야로 도입할 필요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10대 기술을 선정하고 연구개발(R&D) 등을 통해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

○ 포럼은 총 8차례 진행될 예정인데, 로봇, 인공지능·빅데이터, 에너지 절감, 미래형 IoT·센싱, 무인·자동화, 자율주행·드론, 환경친화(부하저감), 스마트 유통 등과 관련된 스마트 기술의 선도 업체를 방문하게 되며,

- 포럼이 종료되는 대로 10대 기술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.

○ 선정된 기술 과제는 “스마트팜 혁신밸리 내의 실증단지*” 등을 활용하여 농업용으로 보정하기 위한 연구개발(R&D) 등을 추진함으로써 기술 도입을 촉진할 예정이다.

* '21년 2개소(전북 김제, 경북 상주), '22년 2개소(전남 고흥, 경남 밀양) 조성 완료(예정)

□ 농식품부 오병석 차관보는 이번 『스마트 농업 현장 포럼』을 통해 산업체 전문가*의 스마트 기술과 농업분야의 융합을 위한 밑그림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-
- * ① 정유·보일러 및 발전과 관계되는 업체들의 에너지 효율화 기술,
② 데이터 생성·취합·분석 관련 영상·화면 인식·판독 및 사물 센싱 기술,
③ 건축·건설 관련 업체들의 냉난방 효율화 기술,
④ 이커머스 및 배송업체들의 유통 효율화 기술,
⑤ AGV(Automated Guided Vehicle), 드론, 무인·자동화와 관계되는 업체들의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
-